

나를 사라 (누가복음 6:1-13)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 바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를 사라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말씀은 조금 성경을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은 기억할 것이다.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 통과하면 역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본문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 성경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없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잘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바르게 깨달아야 하고 매주 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 말씀과 예화와 이야기를 전부다 요약하면 한 개가 나온다. 나의 약속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이다. 불의한 청지기를 예를 들었는데 성경에 청지기가 한 것처럼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나를 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의 피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다 노아처럼 다 살아났다. 노아 시대에는 짐승도 다 죽었다. 날아다니는 새도 다 죽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있었던 짐승들도 다 살아났다. 이것이 언약의 권세이고 언약의 약속이다. 다시 한번 이것이 가슴에 들어와서 언약이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승리하였다.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피를 발랐던 그 날은 흑암 세력, 사단의 나라가 다 무너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해방된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가지고 해방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다. 이것 있으면 분명 성경처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너는 이 피 안에서 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해도 나는 이 언약 안에서 영원히 너를 기다리기 때문에 너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는 것이다. 이 언약의 피가 살아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도 침략 못했다. 오히려 큰 나라가 조공을 바쳤다. 18만 5천명이 하루 아침에 죽어버렸다. 이것이 사실이다. 어떤 때는 이 언약이 살아 있을 때 쳐들어온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어버린다. 차라리 오지 말고 자기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싸우지. 와서 서로 싸우도 죽었다. 어떤 때는 굉장히 큰 군대가 갑자기 너무 놀라서 전부 도망을 가버리기도 하였다. 그 사람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거두어 들이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3일이 걸리기도 하였다. 전쟁을 3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남기고 간 귀중품 거두는데 3일 걸렸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이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포인트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상상도 못할 일을 왜 하시는가? 그것이 포인트이다. 간단하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꾸 생각이 다른데 가서 이것을 안해서 그렇다. 램넛트, 청년 여러분, 아직까지 인생에 쌓인 것이 없어서 미래가 불안할 것이다.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답이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살면 인생이 쌓인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쌓으려고 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쌓이는 것을 생각한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쌓아가시는 것이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야 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다는 이것으로 살아야 한다. 다윗은 골리앗을 아주 간단하게 쳐부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전부 겁을 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다. 간단하게 죽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사실상 바벨론의 영적 왕이었다. 왕이 벌벌 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줬다. 이것이 언약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다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너에게 답으로 주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그리고 명령을 줬는데 너희는 이것으로 살라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인생이 해방받고 정복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증인이 되고 작품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놀려서 산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성경을 봐라는 것이다. 모세가, 다윗이 자기 인생에 놀려서 살았겠는가? 사도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오히려 감옥이 사도바울에게 잡혔다고 하잖는가? 다른 것으로는 이런 해방과 정복의 인생이 되지 않는다. 이 언약이 없으면 평생 무슨 수를 써도 이 울무에서 나오지 못한다. 불안 염려 걱정 짜증에서 절대 못 나온다는 것이다. 돈으로는 절대 안된다. 우리는 이렇게

할수 없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다.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승리한다. 그리고 그 언약의 예배가 되기 바란다.

1. 나를 사라

오늘 본문은 성경에 관심있는 사람은 읽어보고 무슨 소리인가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도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 질문이 많았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아무리 앞뒤를 끼워맞춰도 맞춰지지 않았다. 왜 약한일, 도둑질하는 하인을 지혜롭다 칭찬했는가?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니 넘어가지가 않았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통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안통한다. 연결이 안된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잘 보면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인 것을 사용한 것이다. 주인이 가만히 두겠는가? 어느날 알고 나서 해고를 시켰다. 큰일이 나자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이 약한 자가 피를 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서 그들의 빛의 액수를 깎아줬다.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내가 깎아주면 나중에 자기에게 얼마 주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기름 백말이라고 했다. 이것은 큰 돈이고, 큰 재산이었다. 백말이나 되는데 그걸 50으로 깎아줬다. 주인은 구체적인 서류를 잘 모른다. 이것은 다 청지기가 한다. 밀 100석을 80석으로 깎아줬다. 이 밀은 쌀과 같이 귀한 것이다. 분명히 약한 종인데 주인이 이를 참 지혜롭다고 칭찬했다. 8월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기에 칭찬했다고 했다. 예전에는 이것이 이해가 안되었는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 이것이 핵심인데 예전에는 여기서 걸렸다. 왜 약한 일을 한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가? 9절에 답이 나온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포인트가 영원한 처소이다. 이것은 땅의 일이 아니다. 땅에는 아무데도 영원히 거할 곳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영원을 말하고 천국을 말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말이 풀린다.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기 때문에 칭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있다. 오늘도 말 한마디 하면 새로 지구 하나 만들수도 있는 분이요. 인간 주인은 이런 상황에서 칭찬할 주인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재물에 관심 없다. 관심은 딱 하나이다. 그리스도. 이 약한 인간이 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샀어. 그러니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이다.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아주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약한 청지기를 보고 너 참 잘했다.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이다. 그래서 칭찬도 받고 이 약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기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국 메시지는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사라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이다. 1절에 제자들에게 말하셨다.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너희는 나를 사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처소에서 영접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정복하는 권세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우리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사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중에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생명도, 손톱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돈 모두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라. 그래야 니가 지혜롭지. 진짜 잘했다. 라는 것이 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인생이 되어야한다. 세상에 모든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 그리스도를 사라.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다 자기것인줄 안다.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틀려진 것이다. 그래서 그 물질가지고 자기 것을 산다. 그리스도를 사야 하는데, 그게 답인데 자기 것만 산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것만 사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다. 삶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안 맞으면서 매일 입으로는 응답해달라 기도하니 하나님이 힘드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는 니가 내것 있지만 하나님은 안그러시다. 인간들 사이에서는 도둑질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것은 그럴수 없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것의 일부가 여기서 저기로 옮긴 것 뿐이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약한 청지기의 도

독질로 여기 있던 것이 저기로 갔을 뿐이다. 이 사람에게 있던 것이 저 사람에게 갔다. 그렇게 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상에 있는 나의 모든 것으로 너희의 유일한 친구 그리스도를 사라. 본래 내 것이냐? 니가냐? 내것을 가지고 나의 언약 그리스도를 사라. 그것 말고는 지혜 없다는 것이다. 땅에 있는 것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까지는 귀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로 바꿔놓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다. 13절에 집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수 없다고 했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사랑한다고 했다. 이를 귀하게 여기거나 경히 여긴다고 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물질로 하나님을 사라. 그 물질은 다 내것이므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사라는 것이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두면 문제 오게 되어 있다. 오히려 경제 더 안 풀린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자녀이고 진실로 이 복음 운동을 두고 만일 물질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있으면 경제 더 안 풀린다.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운동 한번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돈을 풀어 주시겠는가?이 영적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아본 사람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영적인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나의 영적 자세나 위치가 먼저 치유되고 교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먼저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 이것이 정상이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있으면 안된다.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도구일 뿐이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청치기를 보고 참 놀랍다 지혜롭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오늘 이 청치기에게 죄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 지혜롭다고 칭찬했을 뿐이다. 너 그거 죄 아니라고 하지는 않으셨다. 분명 죄이다. 악한 짓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 참 지혜롭다고 하였다. 죄를 지어도 지혜로울수 있다. 크게 보면 어짜피 인간은 죄를 떠날 수 없다. 이미 모든 사람이 원죄의 죄인이다. 그 누구나 그렇다면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어짜피 죄인이라면. 매일 사는 것 자체가 죄라면 지혜롭게라도 살아야 한다. 나의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란다. 영화에서는 물질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다. 나의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2. 시급한 것

이 영화에서 한가지 더 생각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만일 훔쳤으면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율법에 정해놓았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도둑질을 칭찬했냐는 것이다. 본문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샀기 때문에 칭찬받을만 했다. 지혜로운 결정이었기에.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이 정당화 될수 없는 것이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과정이 악한 것이 정당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둑질 한 것을 예를 들어 나를 사라고 하셨냐 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선한 예를 가지고 할수 있는데 왜 도둑질을 가지고 말씀하셨냐는 것이다.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 생각에 시급하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 윤리를 따질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조건 빨리 무슨 수를 쓰든지 나를 사라. 지금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행위를 따질때가 아니다. 행위로는 아무것도 안된다. 교회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를 따져서는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 뜻대로 하는 것 아닌가? 니가 도둑질을 해도 그래도 여전히 그것은 내것이다. 사람들 사이에는 니것 내것이 있지만 하나님 사이에는 그것이 없다. 도둑질을 했던지 말든지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사라. 이미 너희는 다 진흙탕 아니냐? 이미 버린 몸인데. 그래서 도둑질을 했니 안했니 따지지 말고 모든 것이 다 내것이니 니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이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빨리 나를 사야하고 나를 전해야 한다. 남의 것을 훔쳐서 나를 사라는 것으로 도둑질을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정당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니까 눈을 열른 떠라. 너는 어디에 잠혀 있냐는 것이다.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니 눈을 뜨라는 것이다. 이만큼 인간의 저주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하고 무조건 나와야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전파해라. 세상의 모든 돈은 불의하다. 깨끗한 돈 없다.

따지고 보면 죄가 없는 돈이 어디 있는가? 나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니까 깨끗하다고 말할수 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니가 정말 100% 최선을 다하는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0.1%만 못했어도 죄인이지. 그러니 율법에 대한 것은 율법을 100% 다 지켜야 다 지키는 것이다. 되는가? 그것이? 아무도 안된다. 크게 도둑질을 한 것이나 조금이라도 죄성있는 돈이나 하나님 눈에 다 마찬가지로이다.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세상에 불의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은 전부 불의하다고 한 것이다. 의로운 것은 나 하나 뿐이다. 그래서 지금 윤리를 따질때가 아니다. 무슨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나를 사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길은 이것 하나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너희들먼저 이 땅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를 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생명을 걸고 평생을 걸어라.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나를 사라. 나를 따르고 너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운동을 땅 끝까지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르심을 받기 바란다. 축복중의 축복이다. 내가 언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평생을 이 일에 드리겠습니다. 237 해야되고 다민족, 램넛트 제자 계속 세워야 한다. 니가 먹고 사는 것 모든 것이 내것이 아니냐. 너는 이 그리스도를 사라 이것이다.

말씀을 정리하면 인간에게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졌다. 물론 죄를 얼마든지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당연히 죄 안져야 하고 죄 너무 많이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 그것은 세상 법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결국은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느 누구 하나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그래서 죄를 따지는 것이 사실 무의미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하느냐 말고는 가치가 없다. 그래서 물질 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라는 것이다. 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은 사실 죄를 안 본다. 하나님이 죄를 보고 심판하는데 왜 죄를 안 본다고 하나? 그것은 한단 낮은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이 죄를 안 보고 그리스도를 본다. 언약을 본다. 왜 심판받는가? 언약이 없으니까 심판이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지옥간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 아무리 많아도 구원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지 죄가 아니다. 죄가 기준이지만 죄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눈이 아주 중요하다. 기준이 죄에 가 있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기준이 죄가 되어 있는 엄마는 아이를 죽이게 된다. 교회의 메시지가 죄가 되어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다 죽게 되어 있다. 매주 메시지 들 때마다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다. 메시지가 그리스도인 교회는 가만히 놔둬도 살아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처음부터 죄인인데 죄 따져서 어찌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원죄 이후로는 사실은 죄를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해진 것이다. 그래서 누구 한사람 죄인 아닌 사람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죄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청치기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리스도다. 이 악한 자가 그리스도를 샀다면 지혜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뿐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로 그리스도를 사라. 이것이 너무나 시급하기에 오늘 도둑질한 청치기를 이야기 한 것이다. 얼마든지 더 좋은 예를 들을수 있지만 가장 현실성 있는 예를 들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너 도둑놈 아니냐는 것이다. 너 도둑이잖아. 도둑질하잖아. 악하잖아? 누가 선한가? 전부다 악하다는 것이다. 그 악하게 번 돈으로 그리스도를 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칭찬하겠다. 그리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걱정말라는 것이다. 얼마나 시급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얼마나 시급했으면 죄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이런 악한 청치기를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사라고 말씀하셨겠는가?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세계 복음화 증인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난주 메시지에 참 놀라운 시대에 영적문제 죽어가는 시대에, 인간이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시대의 소원은 부활메시지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다. 237, 치유, 서밋, 제자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놀라운 언약의 성취가 내가 누리는 근본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나타날줄 믿는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언약잡고 승리하는 한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